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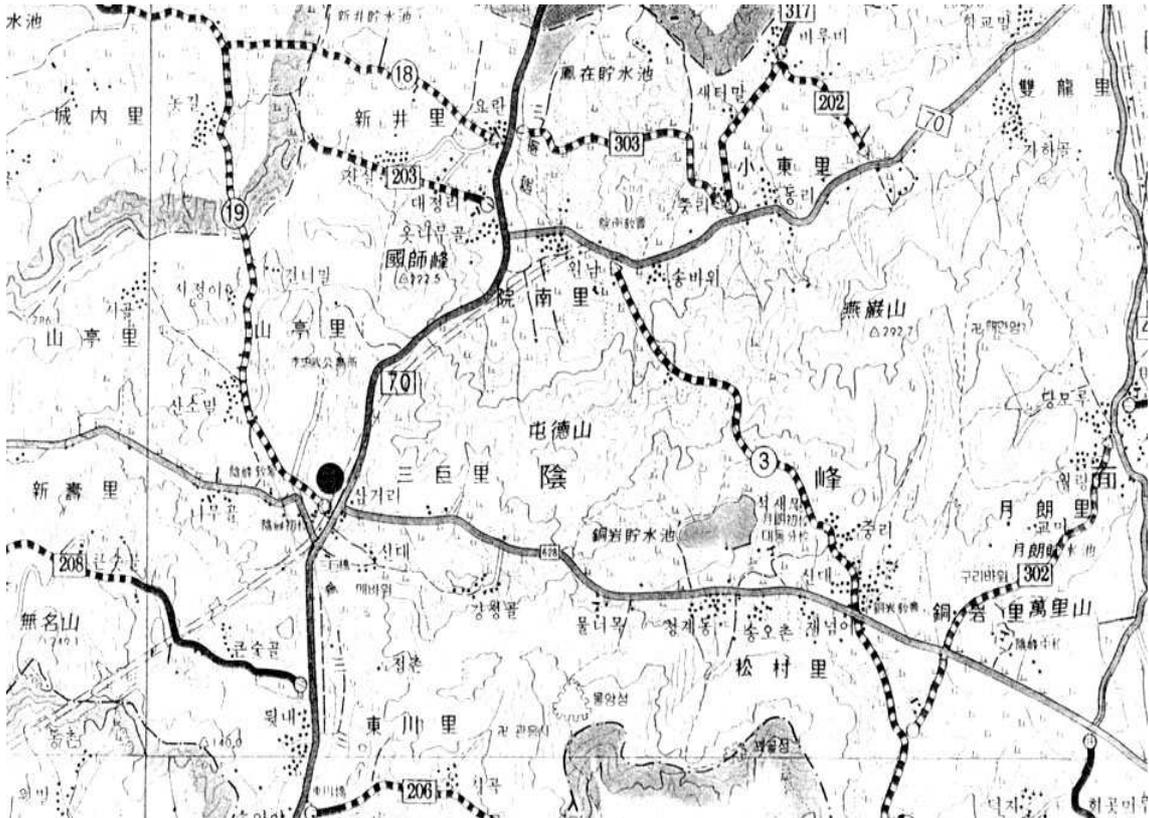
삼거리·삼터말

삼거리는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세갈래의 길이었으므로 삼거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강정리, 응암리를 병합하여 삼거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삼거리는 두 개리로 나뉘는데 1리는 삼거리, 셋터말 2리는 강정골로 나뉜다.

삼거리의 총 인구는 442명이며 가구수는 총 143가구이다. 이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35가구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삼거리 위치도>



☒ 삼거리, 셋터말, 강정골 마을

삼거리 및 새터말의 유래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삼거리의 주된마을이고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세갈래로 나 있기 때문에 삼거리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셋터말은 삼거리와 1리 사이에 있다고 하여 셋터말이라고 한다.

강정골은 옛날 강정골에서 1km떨어진 갑골이라는 한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적이 많아 강정골 까지 들끓어 한집 두집 떠나면서 폐동이 되었다. 그리고 한 참 뒤에 산 맞은편 에 도적들을 피하여 정착하여 살게 되어 현재 동네를 이루게 되었다.

<조사당시 삼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삼거리는 음봉 면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마을로 도로가 628번 도로와 45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세갈래 길로 나뉘어 있다.

강정골은 삼거리 동남쪽에 위치에 있다.

2) 현황

삼거리의 인구현황은 총 335명으로 남자 161명 여자 174명 이며 강정골은 총 107명으로 남자 49명 여자 58명이다. 생업에서는 삼거리는 93% 강정골은 9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삼거리는 논이 22ha 밭이 13ha 이고 강정골은 논이 16ha 밭이 11ha이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삼거리, 셋터말	335명	161명	174명
강정골	107명	49명	58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삼거리, 셋터말	100%	93%	7%
강정골	100%	97%	3%

- 농경지 현황

구분	계	논	밭

마을명			
삼거리, 셋터말	35ha	22ha	13ha
강정골	27ha	16ha	11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삼거리, 셋터말	10	3	5	8	3	4	4
강정골	15	2	8	26	4	10	3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삼거리, 셋터말	1	1	1조	1
강정골	1	1	1조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삼거리, 셋터말	20	15	25	45	75	65	26	30	15
강정골	6	14	21	7	15	14	13	9	5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홍씨	양씨	기타
삼거리, 셋터말	20%	8%	8%			51%
강정골	19%	6%		11%	9%	51%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삼거리, 셋터말	15	5	5	8
강정골	8	4		

- 최고령자

1리는 최금순 할머니로 93세이시고, 강정골마을은 86세의 황홍순 할머니이시다.

- 호당평균소득

삼거리는 년에 약/1,000만원, 강정골도 약/1,000만원

3) 자연경관

음봉면은 경치가 아름다워 도로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많으며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등이 위치하고 있고 상가지역이 밀집해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세갈래의 길이 있으므로 삼거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따라 강정리, 응암리를 병합하여 삼거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삼거리(강정골)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250년 전으로 최씨들이 정착을 했으나 지금은 김씨들의 집성촌이 되었다.

6) 지명

삼거리 : 삼거리의 주된 마을 면사무소가 있다. 길이 세 갈래로 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강정골 : 삼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엔 무쇠점이 있었다고 한다.

새 터 : 매바위 옆에 새로 된 마을.

매 봉 : 삼거리 남동쪽에 있는 산기슭에 매 바위가 있음.

어마목고랑 : 어리목고개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능 밑 : 충무공산소 밑에 있는 들.

몽수목 : 삼거리 앞에 있는 들

매바위 : 매봉 기슭에 있는 큰 바위. 모양이 매와 같다 함.

물너목 : 삼거리 동쪽에 있는 높은 고개 삼거리에서 대동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가 되어서 배티고개로 배가 넘어와서 여기로 넘어 갔다함.

어리목고개 :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고개 삼거리에서 요로원을 거쳐 둔포로 가는데 골이 깊고 산이 으스스하여 도둑이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야 이 고개를 넘어가므로 어리목고개라 함. 명종때 임꺽정이 어리목산성에 웅거하면서 이곳에 지나가는 진상품을 털었다고 한다.

충무공산소 : 삼거리 서쪽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묘소 처음에는 음봉면 면산 아래에 났다가 16년 후인 광해 6년(1614)에 이곳에 옮기었는데높이 2.15m 둘레18.7m 로서 사적 제 112호로 지정되었고 그 밑에 상충정무지비 라는 신도비와 비각이 있음.

어제 이순신 신도비 : 어제 이순신 신도비는 1794년 (정조18년)에 건립한 것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 233cm 폭 105.5cm 두께 47cm 의 규모이다.

이순신 신도비 : 이순신 신도비는 1660년에 건립된 것으로 공의 묘소 입구에 이봉상 신도비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비의 모습은 거북모양의 농대석과 비신 그리고 두마리의 용이 엉킨 모습의 가첨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액은 조각되지 않고 후면에 음기는 1693년(숙종 19년)에 가서 된 것이다.

이봉상신도비 : 이봉상 신도비는 1746년 에 건립된 것으로 이순신 묘소 입구에있는 이순신 신도비의 좌측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본래 이 자리에는 이봉상의 묘소가 있었으나 약 80여년 전 묘소만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로 이장하고 신도비만 남겨둔 것이다.

윤치소 자선비 : 삼거리에 있는 윤치소의 자선불망비. 처음에는 동암리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왔음.

윤치호기념비 : 음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윤치호의 교육사업을 기념한비.

비선거리 : 충무공 산소 앞 백호 끝에 있는 길거리 산부리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충민공 이봉사의 신도비가 있음. 충무공의 묘소가 처음에는 이곳에 있었으므로 신도비를 이곳에 세웠음.

7) 전설

이순신

만포만호영의 들에는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다. 당시 수사로 있던 성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 오동나무를 베어 가려고 하였다. 얼빠진 전라수사가 잘 자란 그 오동나무로 자기가 즐길 가야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한 마디로 안된다고 거절했다. 이 오동나무는 관천의 물건이다. 저것이 저만치 크기에는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곳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길러낸것인데 개인의 가야금을 만들기위하여 하루 아침에베어 버린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보니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인데 성박은 도리어 노하여 이순신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임오년 봄 이순신장군의 나이가 서른 일곱이었을 때 중앙에서 군기검열관이 발포에 와서 군장비를 검열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 하기를 아주나쁘다 하였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는 전날에 훈련원에서 부당한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잘해 놓고도 파면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그보다 중요한 원인은 위의 오동나무에 관한 일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충무공묘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

보물제112호로 1963년 1월 21일 지정되었다.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아 최후를 마친 것이 선조32년 (1598)10월 18일 이었는데 그의 조카인 완이 충무공의 유언에 따라 공의 운명을 숨기고 대신 진두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적이 패퇴한 뒤에 공의 서거를 발표하였다. 그해에 아산 선영이 있는 곳에 안장한 것은 선조 33년 (1599년)2월이었다.

어리목고개

때는 이조말, 어느 허름한 초가에 매일같이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이 초가는 선조는 벼슬을 지냈으나 가산이 빈궁하여 양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름만 양반인 집안이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선조에 부끄럽없이 나라에 충성하려고 열심히 글을 읽었다. 늙으신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밭경이도 없이 남의 집 일을 도와 가면서 아들의 뒷바라지 하기란 너무나도 힘에 겨운 일이었다.

도령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어머니의 고생을 보고 어떻게 늘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 자신이 일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어머니의 굶힐줄 모르는 성미에 놀려 양반 집안의 대를 잇고 가세를 일으키라는 말씀에 뜻을 굳혀 며칠 있으면 4년마다 열리는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령은 더 열심히 글 공부를 했다.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한 노자 몇 푼을 가지고 과거길을 향해 떠났다. 고개를 넘으려 할 때쯤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주막에 들러 시장기를 면하고 떠나려 하자 주막집 주인이 이 때는 산이 으스스하여 도둑이 많이 있으니 사람이 여럿 모이면 새벽에 고개를 넘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령은 지금 고개를 넘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에 고개를 넘을 수 밖에 없었다.

고개를 한참 넘으려니 정말로 산적떼가 나타나 삼시간에 도령을 포박, 산적소굴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이 빼앗긴 것은 없으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구사일생으로 다음날 새벽 도망을 하여 한양에 다달아 과거를 치르니 장원급제라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가세를 일으킨 것이다.

그후 이 도령은 그 고개에 웅거하고 있는 산적떼를 소탕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고개를 여럿이 넘던 고개라 하여 어리목 고개라 하였다. 임꺽정도 이곳에 웅거 활동했다 한다.

이곳은 음봉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고개로써 삼거리에서 요로원을 거쳐 둔포로 가는 고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이 마을에서는 특별히 전해지는 전통놀이는 없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집단행사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등이 있어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 사람들은 작은 계를 하여 마을 사람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윤치호

구 한말의 정치가 호는 좌옹 둔포면 신항리 출신 1881년 최연소자로 신사유람단에 끼어 일본을 다녀와서 개화사상에 눈을 뗐다. 뒤에 미국에 유학하고 1895년 9월에 귀국하여 학부형관이 되고 이듬해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등과 독립협회조직 1898년 2월 회장이 되고 이해 7월 독립신문사장을 겸임하였다. 10월 15일에는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자격으로 시정개혁 6조를 왕께 상소하여 자주독립과 경제 번영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활약했으나 11월 4일 황국 협회 측의 모함을 입어 피신(독립협회사건-대표 17명검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 당하였다.1899년 정부는 윤치호에게 한성 관운을 주겠다고 회유책을 냈으나 이를 거절하자 함경도 덕원부윤으로 쫓겨 갔다. 1906년 4월 장지연

윤희정등과 교육의 확장과 부강을 도모하여 훗날의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대한 자강회를 조직 회장이 되어 활약했다. 1910년 (윤희4년)대한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한일합방 후 데라우찌 총독 암살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1912년 6년형을 받았다.

일제말기에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해방후 친일파로 몰림을 슬퍼하여 개성 자택에서 자결했다.

10) 종교단체

이 마을에서 종교단체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주변의 가까운 마을의 교회, 절등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11) 공장현황

현재 이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교통이 편리한 마을로 삼거리는 이충무공 묘소가 있어 유명한 마을로 자긍심이 대단하다. 또한 삼거리에는 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이 모여 있으며 상가가 밀집해 있다.